



업종에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주가 약세 지속

은행 Weekly | 2026.8.24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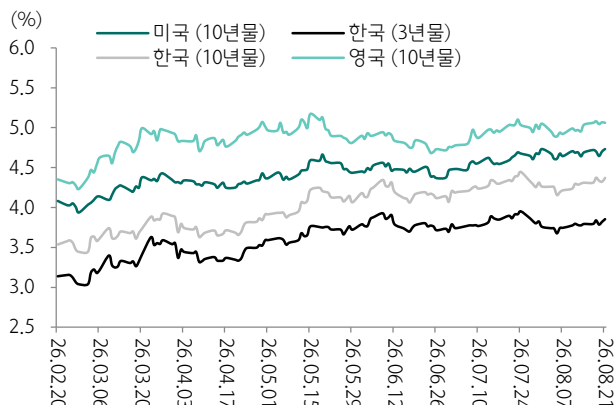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확대한데 따라 이달내 은행별 목표치 배분 작업 마무리 예정.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유보분 총량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해 금융회사별 총량 관리 목표치에서는 제외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에 맞춰 18년 만에 예금보험료를 인상을 추진. 현재 0.08%인 은행의 예보료율이 0.13%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은행의 예보료(1조 4,600억원) 납부액에 적용하면 연간 9,100억원 추가 부담 예정
- 4개 은행의 7월 ETF 판매액은 총 1.9조원으로 6월(11.3조원)보다 83.1% 감소. 증시 투자심리가 급격히 가라앉은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양상으로 증시 투자자예탁금 및 은행 요구불예금이 감소하고 예금금리가 오르자 자금은 예금으로 대거 이동
- 우리금융이 지난해 동양·ABL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한데 이어 2027년 하반기 총자산 55조원 규모 통합 생보사를 출범시켜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 보험이익의 주요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8월 21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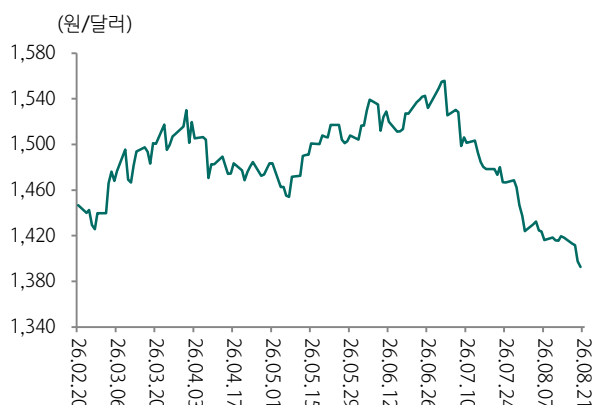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9	6.7	23.7		5,712,979.4	-0.9	2.4	-11.9	64.0	-3,797.4	-153.5	-1,986.5	3,627.9
은행	0.68	7.8	9.0	0.64	203,834.5	-3.2	-2.8	2.4	24.7	3.1	-24.7	-126.2	118.9
KB 금융	0.90	8.8	10.4	0.79	58,275.2	-2.5	-5.6	2.7	31.8	-40.5	-8.5	-22.5	61.6
신한지주	0.79	9.4	9.5	0.68	48,869.8	-3.1	-0.6	6.0	35.4	18.5	-11.4	-18.2	0.3
우리금융	0.57	7.2	8.3	0.52	23,116.9	-5.8	4.1	0.6	13.4	4.9	9.9	-31.6	25.9
하나금융	0.70	8.0	9.3	0.64	35,338.6	-3.2	-2.9	5.5	36.9	18.3	-11.1	-26.9	8.0
기업은행	0.43	5.8	7.5	0.54	15,948.5	-2.0	-2.7	-4.8	-4.5	0.0	0.3	-17.7	16.2
BNK 금융	0.39	5.4	7.4	0.50	4,440.8	-5.4	-20.9	-18.1	-9.8	-1.3	-0.2	-6.1	7.1
이M 금융	0.41	5.6	7.5	0.47	2,720.7	-1.7	-5.3	-9.2	10.5	6.1	-0.5	-5.0	-1.1
JB 금융	0.75	6.5	12.1	1.00	4,961.5	-5.0	2.3	5.8	3.7	-2.8	-3.1	1.9	1.0
카카오뱅크	1.43	17.6	8.3	0.73	10,162.7	-4.1	-4.1	-6.6	-1.4	-2.2	-0.4	-6.1	8.3
삼성카드	0.59	8.5	7.0	1.90	5,346.9	-4.9	-2.5	-4.3	-17.4	0.9	-0.1	-5.5	4.7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에도 은행주는 3.2% 하락해 KOSPI 하락률 0.9% 대비 초과하락. 계속된 초과하락의 이유는 1) 역대급 주주환원을 발표 또는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관련주들만 주가가 상승하고 그 외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하는 등 KOSPI내 쏠림 현상이 다시 극심해지면서 은행주 수급 또한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하는 등 은행주에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은행주가 증시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 주가가 잠깐 상승세를 보이는 defensive 주식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은행지주사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세 지속. 미국 정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 등으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중.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24%로 한주간 7bp 상승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74%로 5bp 추가 상승. 국내 국채금리도 8월 금통위를 앞두고 상승세 이어짐. 국내 3년물 국채금리는 3.85%로 5bp 상승했고, 10년물은 4.38%로 한주간 7bp 추가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및 수출기업 달러 매도 등으로 추가 급락해 1,400원선을 하회. 1,386.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30.0원 추가 하락했음. 외국인인 지난주에 KOSPI를 약 1.9조원 넘게 순매도하고 은행주도 1,260억원을 순매도. 국내 기관은 KOSPI를 약 3.8조원 순매도한 반면 은행주는 3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 1,1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순매도이며 국내 기관들의 은행주 매도 추세가 지속 중인 상황
- 지난주 특징주는 우리금융.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했지만 우리금융은 한주간 주가가 5.8% 하락해 하락 폭이 가장 컸음.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환율 하락으로 대규모 외화환산익 발생 예상에도 외국인이 20~21일 양일간 1.4백만주 가까이 순매도한 점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듯. 외국인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계속 순매수세를 보인 바 있었음. 그 외 BNK금융과 JB금융도 주가가 각각 5.4%와 5.0% 하락해 상대적 약세를 나타냄
-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은행 신탁이익(ETF 관련) 및 증권 브로커리지수수료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예보로 인상과 서민금융·상생금융(중저신용자·청년대출) 확대, 고액·고가주택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및 국고채 담합 과징금 우려 등의 네거티브 뉴스플로우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4대 대형은행지주사들의 증권 브로커리지수수료는 1분기 중 약 0.85조원이었고, 2분기는 약 1.11조원. 은행 신탁이익은 1분기 약 0.59조원에서 2분기 약 0.87조원임. 따라서 거래대금 추이를 감안해 이론적으로 단순 비교시 만약 3분기 브로커리지수수료와 신탁이익이 1분기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할 경우 QoQ 세전 약 5,400억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최근 환율이 6월말 대비 약 160원 가량 급락하면서 하나·우리·기업 세 은행에서만 3분기 중에 약 4,000억원이 넘는 외화환산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을 전망. 따라서 3분기 순이익이 2분기 대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금주 주요 이슈는 27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큰폭 하락했지만 물가상승률이 높고 그동안 한은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해왔다는 점에서 8월 인상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 채권전문가들의 인상과 동결 예측은 거의 절반 정도씩이지만 최근에는 인상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임. 설령 8월에 인상되지 않더라도 10월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조달비용률 상승으로 6~7월 은행 월중 NIM이 기대를 하회했지만 결국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은행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가량비에 옷이 젖듯 예보로 인상 등의 소소한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불확실성 등도 우려 요인. 현 은행 PBR이 0.68배로 다시 0.7배를 하회하고 있고, 금리와 환율 등 매크로지표 방향성이 은행업종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큰폭의 가격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KOSPI의 주가와 수급 향방에 따라 은행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은행주는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기존 의견을 계속 유지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BNK금융(매수/TP 24,500원)

- 우리금융의 지난주 주가 하락은 갑작스러운 외국인 매도 확대에 따른 것으로서 지속되지 않을 경우 리바운드 기대. 외화환산익 발생 규모가 신탁이익 감소 폭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이익가시성도 높은 상황. 현 PBR 0.57배에 불과
- BNK금융은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지만 일방적 매도세에서는 벗어남. 캐피탈그룹 매도에 따른 수급 불안 일단락 기대. OK그룹 매수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PBR 0.39배는 과도한 저평가. 점차 저점확인 시작될 것으로 예상

Global Peer Table

(2026년 8월 21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9	6.7	23.7		5,712,979.4	-0.9	2.4	-11.9	64.0
은행	0.68	7.8	9.0	0.64	203,834.5	-3.2	-2.8	2.4	24.7
KB금융	0.90	8.8	10.4	0.79	58,275.2	-2.5	-5.6	2.7	31.8
신한지주	0.79	9.4	9.5	0.68	48,869.8	-3.1	-0.6	6.0	35.4
우리금융	0.57	7.2	8.3	0.52	23,116.9	-5.8	4.1	0.6	13.4
하나금융	0.70	8.0	9.3	0.64	35,338.6	-3.2	-2.9	5.5	36.9
기업은행	0.43	5.8	7.5	0.54	15,948.5	-2.0	-2.7	-4.8	-4.5
BNK금융	0.39	5.4	7.4	0.50	4,440.8	-5.4	-20.9	-18.1	-9.8
IM금융	0.41	5.6	7.5	0.47	2,720.7	-1.7	-5.3	-9.2	10.5
JB금융	0.75	6.5	12.1	1.00	4,961.5	-5.0	2.3	5.8	3.7
카카오뱅크	1.43	17.6	8.3	0.73	10,162.7	-4.1	-4.1	-6.6	-1.4
삼성카드	0.59	8.5	7.0	1.90	5,346.9	-4.9	-2.5	-4.3	-17.4

미국

S&P 500	5.17	21.3	22.8	5.99	68,508.7	-1.4	2.3	3.4	12.1
은행	1.71	12.9	13.3	1.15	2,293.1	-4.3	-0.2	14.3	8.0
Wells Fargo	1.49	12.1	13.3	1.03	253.5	-5.6	-3.9	11.1	-10.0
JPM	2.54	14.3	18.8	1.38	934.6	-3.1	1.8	16.5	9.1
CITI	1.12	11.9	10.0	0.71	220.8	-5.5	-0.4	5.7	12.8
BOA	1.52	13.3	12.2	0.99	431.4	-4.3	0.8	20.4	12.2
US Bancorp	1.53	11.8	13.4	1.18	96.7	-5.2	-2.6	14.7	16.3
PNC	1.62	12.6	13.2	1.27	97.0	-5.4	-2.9	12.2	16.5
BB&T	1.02	11.0	9.6	1.05	61.6	-5.0	-0.9	6.3	2.5

중국

상해A주지수	1.36	13.8	10.1	1.44	62,741.9	-0.5	1.3	-3.0	-1.6
은행	0.69	7.5	9.4	0.69	12,424.9	3.3	3.8	6.9	-4.6
공상은행	0.67	7.5	9.0	0.68	2,651.1	2.8	2.8	8.7	-2.0
건설은행	0.73	8.0	9.6	0.73	2,128.6	2.8	3.3	6.9	13.5
농업은행	0.81	8.2	9.8	0.59	2,330.0	4.8	5.4	4.1	-11.7
중국은행	0.68	8.1	8.5	0.64	1,838.1	2.9	2.9	6.4	5.6
교통은행	0.51	6.7	7.8	0.62	606.8	3.5	4.6	10.0	-1.8
초상은행	0.82	6.5	12.9	1.13	997.1	1.1	2.4	7.6	-7.6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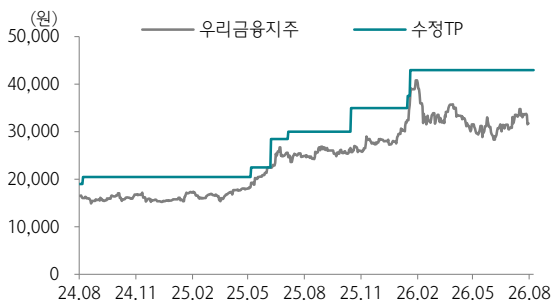
NIKKEI	2.84	21.4	12.9	4.60	1,041,826.6	-3.9	-0.3	7.1	31.1
은행	1.43	14.5	9.7	0.51	142,398.8	-4.4	-1.1	12.1	41.5
Mitsubishi UHF	1.86	17.7	10.8	0.61	41,631.9	-4.8	-2.0	14.4	40.7
Sumitomo Mitsui Financial	1.62	15.9	10.8	0.61	25,110.2	-5.2	-5.0	9.5	31.0
Mizuho	1.80	16.7	11.4	0.43	19,811.4	-5.9	-2.3	11.1	42.3
Sumitomo Mitsui Trust	1.43	15.9	9.3	0.37	4,795.3	-1.2	1.9	20.3	43.6

유럽

MSCI Europe	2.40	16.1	14.4	1.77	15,740.8	-0.5	1.9	6.2	10.7
은행	1.56	11.5	13.7	0.75	2,219.6	-2.2	2.8	17.2	20.6
HSBC	1.89	12.3	15.5	0.85	260.7	-0.6	1.1	12.4	29.4
Santander	1.67	12.1	13.8	0.79	188.5	-2.7	5.4	20.0	24.6
BNP Paribas	0.96	9.2	10.9	0.45	118.4	-4.1	2.2	20.6	33.1
Credit Agricole	0.78	8.3	9.8	0.29	57.7	-5.6	5.3	19.1	8.7
Deutsche	0.91	9.7	9.6	0.44	61.8	-2.9	4.3	18.2	-2.3
Unicredit	1.74	11.3	16.4	1.23	125.2	-2.6	0.5	17.5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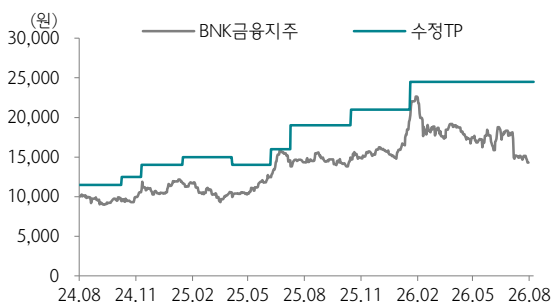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우리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24.3.21	BUY	19,000	-23.12%	-12.63%

BNK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24,500		
25.11.7	BUY	21,000	-24.78%	-6.19%
25.8.1	BUY	19,000	-23.37%	-17.89%
25.6.30	BUY	16,000	-7.88%	-0.31%
25.4.28	BUY	14,000	-20.70%	-9.21%
25.2.7	BUY	15,000	-28.96%	-21.27%
24.12.2	BUY	14,000	-20.72%	-13.14%
24.10.31	BUY	12,500	-22.39%	-15.52%
24.5.2	BUY	11,500	-21.47%	-10.52%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건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20%	1.80%	0.00%	100%

* 기준일: 2026년 8월 21일